

동아시아 3국 지방의회 협력 '새 지평'

전북자치도의회 주최 '한·중·일 지방의회 협력 포럼' ... 중국 장쑤성 인대·일본 이시카와현의회 참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주최하고 전북국제협력진흥원·(사)지치분권포럼이 주관한 '한·중·일 지방의회 협력 포럼'이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중국 장쑤성 인대, 일본 이시카와현의회 대표단을 포함해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대식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의장이 '한·중·일 지방의회 교류 및 연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하며 포럼의 의미와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포럼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동아시아 3국의 지방의회 협력 및 활성화'를 주제로 각국 의원들이 발표하며 각 지방의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3국의 발표자들은 지방의회의 주요 역할과 정책,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포부를 공유했으며,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각 지역의 현안과 교류 확대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동아시아 3국의 문화·관광 교류의 활성화'를 주제로 3국 간의 문화적 교류와 관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발표자들은 문화·관광 활성화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공유하며, 문화 교류를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개최한 '한·중·일 지방의회 협력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통한 상호 이해 증진이 한·중·일 지방의회의 협력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지방의회 차원의 외교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동아시아 지역사회의 전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3국 지방의회가 동아시아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았다.

포럼 종료 후, 한·중·일 대표단은 익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김제 새만금 33센터, 부안 내소사와 청자박물관 등을 시찰하며 전북의 문화와 산업 자원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전북의 잠재력과 문화적 역량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문승우 의장은 "이번 포럼이 동아시아 3국 지방의회 간 지속 가능한 지방

외교 확대와 협력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각 지역이 상호 발전하며 동아시아의 협력적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중·일 3국 지방의회가 직접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상호 이해와 연대를 다지고 협력의 새 지평을 여는 역사적인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이다. /이만호 기자

"청렴 강화로 도민 행복 실현"

김관영 도지사, 청원들 노고에 격려 메시지 전달



5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도청 직원들에게 '공직자의 청렴과 책임감을 강화해 도민의 행복을 실현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 지사는 도청 직원들에게 그간의 성과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한편, 최근 일부 공직자의 일탈 행위로 도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느끼며 도민을 위한 공직 기강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메시지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도약하며, 지난 한 해 동안 전북도청 직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거둔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존감을 세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12조8,000억원의 투자 유치 등 굵직한 성과들은 도민들의 염원을 담아낸 결과라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과 함께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 지사는 공직자의 본분이 도민의 행복한 삶에 있음을 강조하며, "아무리 큰 성과를 이루더라도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며, 청렴과 기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청렴은 과거의 고리타분한 가치가 아닌, 시대의 변화와 함께 더욱 중요한 현대적 가치를 강조하며, 도민의 감수성에 공감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세를 잊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 지사는 내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전북도청이 하나 되어 높은 산을 넘을 것을 강조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이 지금처럼 단합해 나간다면 더욱 큰 목표를 이루어낼 것이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를 격려하며 힘을 모아주길 요청했다.

전북특별자치도청은 청렴과 성과 창출을 위한 체계적 노력을 이어가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발전을 실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만호 기자

"햇볕정책 시즌2 준비해야"

전북 백년포럼 제17강...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초청 특강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5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남북관계 파란의 원인과 전망: 해법은 있을까?'를 주제로 '전북 백년포럼' 제17강을 개최했다.

강연자로 나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 관계의 역사를 시대적 흐름에 맞춰 되짚어보고, 현재와 미래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1967년 박정희 정부 당시 국토통일원 설립을 시작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며, "남북의 문제는 정권에 국한되지 않고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작년 연말에 북한이 전월교섭에서 남북관계를 민족통일의 문제가 아니라 적대국가 관계로 접근하겠다고 선언한 이후로 남북 긴장이 고조된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정 전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햇볕정책 시즌2를 준비해야 하며, 지역 차원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남북 교류 협력 모델이 함께 구상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한반도 평화의 길은 중앙 정부만의 몫이 아니라"라며, "전북이 가진 자원을 활용해 지역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의 특강을 맡은 정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의 통일부 장관과 노무현 정부의 통일부 장관, 제11대 원광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앞으로의 전북 백년포럼 일정은 오는 12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강사로 나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민주 신영대 의원, 검찰 구속영장 청구에 "무죄 입증... 끝까지 싸울 것"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덮기 위한 야당 죽이기 수사"

수상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 관련 금품 수수 혐의 등 받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수상 태양광 사업의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서도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22대 총선 당시 자신의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폰 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지난 3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해 "자신의 무죄를 반드시 입증하고 검찰 정권 종말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5일 오전 10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를 덮기 위한 검찰의 야당 죽이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자신을 검찰에 소환하여 30일 2시간 동안 조사를 받게 한 후 31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조서에 일크도 마르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로,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가장 빠른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며,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의 '답정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자신이 조사를 받은 "북부지역 재정비촉진수단"은 문제인 정부의 태양광 수사를 1호 사건으로 내부세우며 출발한 조직이며, 3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5일 오전 10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까이 재생에너지를 죄악시하며 민주당 죽이기 수사를 했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에 청구된 내용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과 총선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하여 여론 조작에 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러나 뇌물수수 건은 진술만 있으며, 뇌물 사건은 은밀하다는 특수성이 있어 관계자의 진술을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진술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공직선거법 사안의 경우 30여 군데 입수금액과 20명의 소환조사에도 증거는 고사하고 진술조작 없다"며, "선거에서 자신을 도와주는 분들이 고초를 겪고 있어 마음이 무겁고,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일탈에 자신 또한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만호 기자

신 의원은 "내가 처음이 아니라 앞으로 민주당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빼기 위한 여러 공작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신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신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신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신영대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인한 향후 일정에 대하여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게 될 것으로 보며,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군산을 지역구로 둔 김태환·김동우·박정희 전북자치도의원이 동참해 힘을 보탤다. /이만호 기자



진형석 도의회 교육위원장 영유아 교육·보육 발전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지난 4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영유아 교육·보육 발전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영유아의 교육·보육 발전 방안에 대해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집 연합회,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북지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열렸다.

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발전 방안으로서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교육행정시스템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사이의 공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전북지회는 표준 유아교육비, 원비 인상률, 4·5세 교육비 등에 대해 제안했고, 어린이집 연합회는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어린이집 현장 건의 등을 했으며, 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진 위원장은 유보통합의 이상적인 모델과 합리적 형태 등의 도출을 위하여 교육부가 일반적으로 하달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보다는 17개 시·도의 집약된 의견을 교육부로 전달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이 교육부의 유보통합 진행에 가속도를 줄 수 있고, 바람직한 방안이라며 제안했다.

또한, 진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영유아가 좋은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상이할 수 있지만, 큰 틀 속에서 방향성은 같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 참석자 모두 적극 공감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의견 교환의 자리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이만호 기자

쌀값 정상화 촉구 천막농성에 농민단체 지지 방문

한농연 중앙회 최홍식 회장 등 농성장 찾아 농민 지지 표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쌀값 정상화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의 지지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오전 10시 30분경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의 최홍식 중앙회장, 전북연합회 최은식 수석부회장, 김제시연합회 이호섭 회장,

서용식 사무총장 등이 농성장을 방문하여 지지를 표명했다.

최홍식 회장은 "수확기 대책 발표에 불구하고 쌀값이 하락하고 있어 농업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이 크다"면서, "수확기 및 연중 쌀값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농성에 힘을 실었다.

이번 방문은 지난주 발표된 10월 25일 기준 산지 쌀값이 80kg당 18만



2,900원으로 전년 대비 10.6% 하락하는 등 지속적인 쌀값 하락에 대해 정 부가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농민단체들이 연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한편, 6일 오후 2시에는 전국쌀생산자협회와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농성장을 방문한다. /이만호 기자

지역 대학 발전 방안 '머리 맞대다'

최형열·이병철 도의원, 전주대 총장단과 간담회

"지방 대학 관련 사업, 특정 대학만을 위한 일 아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전주5)이 지난 4일 의원실에서 전주대 총장단과 글로벌 대학, 라이즈 등 지역 대학 관련 주요 현안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 자리에는 이병철 도의원과 전주대학교 박진배 총장, 이해원 산학부총장, 권순대 교육부총장, 전대생 교수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 박현규 국장, 교육협력 추진단 이지형 단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박현규 국장이 글로벌 대학 및 라이즈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과정을 설명한 뒤, 전주대 총장단과 함께 도내 지역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전주대학교 박진배 총장은 "전북대가 글로벌 대학 30에 선정된 이후 도와의 협약에 따라 500억원 규모의 도비가 지원되었고, 이를 활용해 지역 대학과 상생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협력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협약에 따라 총 사업비 799억원(도비 306억원 투입), 23개의 지역 상생 사업 과제가 발굴됐으나, 대부분 출연기관 및 시·군과의 협력 과제로, 지역 대학이 참여하는 과정은 사실상



전문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형열 위원장은 "법정부 차원에서 지역 및 지역 대학의 생존을 지방에 떠넘기려는 기조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대학만을 위한 일 아닌 지역 대학 모두가 함께 생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병철 의원은 "남은 도비만이라도 지역 대학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도가 책임지고 컨트롤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 대학별 도민 규모를 따져 사업비를 강제로 할당하는 등 강경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현규 국장은 "글로벌 대학, 라이즈 등 현재 진행 중인 지방 대학 관련 사업들이 특정 대학 중심이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역 내 대학들과 긴밀히 협력해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